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 1:4-10)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번이 아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되기 20년 전부터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 왔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때 어떻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인생을 정복하고, 작품을 만들려면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고백은 가볍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보고, 눈이 열려본 사람, 응답 받아 본 사람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눈이 열려 원죄를 알게 되면 답이 나게 됩니다. 내가 믿고 있던 그리스도가 그날부터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전에는 그냥 믿고만 있었는데, 원죄를 알고 난 뒤 그저 믿음으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누림의 대상, 전쟁의 무기로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복을 위하여 주신 약속으로도 보입니다. 원죄를 모르고 혼자 행복할 수도 있고, 혹은 괜히 혼자 우울함에 갇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원죄를 몰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를 알고, 원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인도 하나, 답도 하나인 것을 알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원죄를 끝내고, 원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이 되면 오늘도 그것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구체적인 무기입니다. 근본 무기인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인 무기를 오늘 말씀 통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답이 납니다.

1.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일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비밀이 됩니다. 그 말씀이 만일 평생을 갈 언약의 말씀이 되면 이제는 작품 인생이 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고, 기도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당연히 인생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하고, 누려지게 됩니다. 증거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향하여 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평생의 비밀이 되고, 평생의 힘이 되고,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고,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고, 안 그러려 해도 망대가 될 것입니다. 문제가 역전되어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복 중의 정복입니다. 문제를 깨는 것, 그것도 정복입니다. 요셉, 모세, 다윗, 바울 모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중 오늘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볼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중요한 근본을 5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라로 세웠노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했으나, 7절에 주님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9절에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은 것입니다.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권세를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말씀 받아 전달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권세이고, 말씀을 맡은 자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죽여야 할 것, 깨야 할 것, 세워야 할 것, 심어야 할 것 등이 있는데, 무엇으로 할 것이냐?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한 개인과 나라가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절대 권세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그대로 행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이미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예레미야는 미리 봤습니다. 예레미야 1:13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예레미야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면 살고, 아니면 죽게 되었습니다. 나라도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유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의 말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모든 상황을 역전하고, 뽑고, 파괴하거나 파멸할 수 있고, 건설하고, 심을 수도 있고, 모든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당시 세상의 모든 것은 예레미야의 말에 달려있었습니다.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 시대에선 누구에게나 선지자입니다. 따르면 살고, 거역하면 죽습니다. 답이 처음부터 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대 자신

의 말을 하지 않고, 받은 말씀을 전달합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하는 말을 누구에게든 전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이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요 7:16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요 12:49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런 말씀은 성경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상황, 여건, 이유 필요 없게 됩니다. 그 안에 뽑는 것도 있고, 파괴하는 것도 있고, 파멸하는 것도 있으나 그것뿐 아니라 건설하고, 세우고, 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말씀을 받으면 평생이 끝나고, 오늘의 말씀 받으면 오늘이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꽂혀 예배에 생명을 걸고, 그냥 예배가 아니라 말씀에 생명을 걸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예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왜 못하느냐? 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세상 어떤 것도 말씀의 권세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정복하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 눈이 열려야 한다

말씀을 받으면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릴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 기도할 때, 생각하고 걸어가는 중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마음에서 생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말씀은 하나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받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림으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길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상황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아무리 바벨론이 들어와 공격하려 해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돌아다니며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눈이 열린 것입니다. 계속 피하는 길을 말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고 왕이나 관리들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봐서 알고 있는데 믿지 않으니 애가 탈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저 울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신은 봤는데 사람들은 듣지를 않으니 슬픈 노래까지 썼습니다(예레미야 애가).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으니 가슴이 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진실인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미친 사람, 바벨론 편이라는 취급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눈이 열린 자의 축복이면서 고난입니다. 마 5:4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고 했습니다. 산상 수훈의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마 5:3)는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복의 내용이 애통입니다. 세상을 보고 애통해하시는 주님의 애통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이 있느냐? 예레미야의 심정을 예상해 봅니다. 자신은 아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님도 알고, 예레미야도 알고 있었으나 사람들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마음이 애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고, 늘 내 생각d,f 하고, 내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며 드는 마음. 안 되는 게 뻔한데 왜 거기로 향하기만 하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것에는 정복하고, 작품 만들게 되는데 왜 반대로 가는지 그것을 보는 게 애통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변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말씀을 받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니 눈이 열려 예레미야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길은 말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하면 자동으로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해야 할 이유도 보이고, 방법도 보이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내용도 늘 듣던 것이지만 생각, 느낌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게 이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확신이 들고, 가능해 보이고, 할 수 있다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지속하고 싶고, 줄어들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될 때까지 가야 한다는 결론과 반드시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 무엇보다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늘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문제가 일어나면 더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성경 속 모든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받은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아무도 낙심하지 않았고, 막히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취되었고, 세상은 그때야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에 해답을 줬을 때 세상이 요셉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시대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진 복음과 같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눈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들어오면 이 기도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300%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